‘오르지 못할 나무’에 대한 오해

(욥기 25:1~6)

1.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2.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3.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4.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5.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6.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오늘 말씀 중심으로 <'오르지 못할 나무'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에 대한 오해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능력 밖의 일에는 처음부터 욕심을 내지 말라는 교훈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체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분수를 알고 순리와 본분 안에서 살아가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염두에 두면서 “오르지 못할 나무라도 못 오를리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무한히 꿈을 꾸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달려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때로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지고 절뚝거릴 수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성공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없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도전하는 자의 삶은 아름답다”라는 말들이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 속에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에 도전해서 오를 수 있었다면, 그것은 결국 오르지 못할 나무는 아니었다는 것이 됩니다. 오르지 못할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오를 수 없는 나무는 오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법적으로도 오르지 못할 나무가 아니라 ‘오를 수 없을 것 같았던 나무를 용기를 내서 도전했더니 오를 수 있었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정말로 오르지 못할 나무에 평생을 도전한다면 결국 오르지 못할 뿐입니다. 올라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오르지 못할 나무와 오를만한 나무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를 수 있는데 올라가지 못할 것처럼 보이고, 오를 수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오를 수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돈 많이 벌어서 가족과 행복하게 살겠다는 꿈은 오를 수 있는 나무일까요? 오를 수 없는 나무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울 뿐인지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착각이라면 어떨까요? 돈 벌어서 가족과 행복하게 살아가겠다는 꿈이 오를 수 없는 나무인데, 착각해서 오를 수 있는 것처럼 돈 벌고 애쓰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오해의 먹구름을 완전히 걷어내고 우리의 삶을 온전한 맑음 안에서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화자인 빌닷은 앞서 말한 오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오해가 어떤 것인지를 알면 이해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먹구름 드리워진 오해를 걷어내고 쾌청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빌닷은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이야기하고, 4~6절까지는 하나님과 비교되는 인간의 미천함과 나약함과 더러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장과 24장을 지나오면서 욥은 더 이상 친구들과 변론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친구들이 받아들여주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욥의 관심은 이제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고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주체성을 인정하며 살아왔던 욥이 이제는 그 하나님을 보기를 열망하고 1:1의 관계에 서기를 열망하며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열망하는 욥의 모습을 보고 빌닷은 본문대로 비난을 합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기에 대항하는 모든 영적세력을 진압하시고 평정을 이루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3절의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라고 하는 말은 임금의 위대함은 입에서 나오는 말 한 마디로 움직일 수 있는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위세를 인간의 능력으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데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군대를 말씀 하나로 움직이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빠짐없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절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라고 하는데 이러한 위대하신 하나님에 비해 인간은 깨끗하지 못하고 보잘 것 없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5절에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이라고 하는데, 달과 별 같이 대단한 존재들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그 존재감이 제로인 상황임을 뜻합니다.

6절에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이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1:1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느냐고 욥

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거망동이 어디 있으며 언감생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욥을 향하여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오늘 빌닷의 말에는 아무런 오류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존엄하심과 위엄과 거룩하심과 전능하심 앞에서 우리 인간이 벌레와 구더기 같은 자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1:1의 상대자로 관계하려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는데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즉 빌닷은 욥에게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오해가 들어있고 거룩함을 가장한 사기이기 때문에 가장 악한 죄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백정의 딸이 좌의정 이판 대감의 아들을 사모하게 되었다고 해봅시다. 이것을 알게 된 백정은 딸에게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백정의 딸도 이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감댁 아들에 대한 사모함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인 하나님을 갖고 싶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함을 가장한 사기꾼들은 우리에게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신 높은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벌레와 구더기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마음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 것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오를만한 나무처럼 보이는 이 세상 것들을 통해서 만족하며 살라고 합니다. 또한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저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을 바라라고 합니다. 언뜻 맞는 말 같지만 이것은 가장 죄질이 악한 사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브루스 올마이티(Bruce Almighty)”라는 미국 영화가 있었습니다. 주인공 브루스에게 어느 날 온갖 재수 없는 일들이 겹치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는 해고당하고, 길거리에서 건달들에게 얻어터집니다. 또한 교통사고를 당해서 자동차는 부서지고 맙니다. 분통이 터진 브루스가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하나님! 세상 좀 제대로 다스리쇼.”라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그럼! 네가 다스려봐라.”라고 하시며 브루스에게 전능한 힘을 일주일 동안 빌려주십니다. 브루스는 일주일 동안 신바람이 나서 이 전능한 힘을 남발하기 시작합니다. 분당 수백 건씩 몰려오는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자 세상은 오히려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40만 명에게 복권 1등 당첨의 소원을 들어주자 배당금이 17달러에 불과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폭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자 친구와 분위기 있는 밤을 지내기 위해 창가로 달을 끌어들이자 지구 반대편에서는 엄청난 해일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달에 주목해봅니다. 하늘에 있는 달을 베란다로 끌어들인 브루스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달이 “You are asking for the moon.(너는 달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

은 '너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요구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이성을 너무 사랑할 때에 "하늘에서 별이라도 따다 주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불가능한 것의 상징으로 하늘에 있는 것을 일컫는데 이게 정말 웃기는 오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불가능한 일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통해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늘에 계신 해 같고 별 같이 빛나는 하나님을 갖는 일이야 말로 오를 수 있는 나무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녀를 잘 키워서 행복하려고 하지만 이것이야 말로 애초에 오를 수 없는 나무입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을 손에 쥠으로서 만족하고 기쁠 수 있다는 생각은 아예 오를 수 없는 나무에 대한 착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하늘을 이 땅에서 갖는 것을 별과 달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을 갖는 일이야 말로 이 땅을 사는 우리가 유일하게 오를 수 있는 나무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사고를 뒤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라서 우리 인간과 달리 하늘에 계시며,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도에 맞춰 이 땅에서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야 말로 가장 죄질이 악한 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땅에서 살게 하신 이유는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을 갖는 기회를 포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오를 수 있는 나무와 오를 수 없는 나무를 뒤집어 생각해왔던 셈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가치는 얻기도 힘들거니와 얻는다 해도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예 오를 수 없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나무에 오르는 시도라도 해보라고 하신 적조차 없습니다. 그러한 시도가 바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자신에게 좋고 나쁨을 판단하게 되어서,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얻어서 행복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이고 오를 수 없는 나무를 오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어서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려는 것이 곧 오를 수 없는 나무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것을 얻겠다는 노력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오를 수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을 가짐으로서 이 땅에서 행복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오를 수 있는 나무인 것입니다.

빌닷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거룩하시며 인간은 벌레와 구더기 같이 더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나타난 사건이 구약의 제사였고, 그 제사의 완성은 십자가복음 사건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가까이 오는 자들은 다 죽이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더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9장 42절에서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라고 상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며 그 자리에서 인간을 만나시기로 합니다. 1:1의 관계가 성립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와 성전의 완성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더러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핑계 삼아 멀리 쫓아버리고 이 땅에서의 형통을 좇게 되었습니다. 돈을 좋아할지언정 어떻게 하나님을 좋아하겠느냐는 생각이야말로 마귀의 덫에 걸린 것이고,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악한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늘에 계심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을 가지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 인간과의 1:1관계를 열어두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세상에서 돈을 벌겠다고 있지도 않은 길을 가면서 평생을 고생하고 삽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돈을 벌더라도 절대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오르지 못할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가짐으로 만족하고 기쁠 것이라고 선택하고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오르지 못할 나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조차도 진정으로 오를 수 있는 나무이신 하나님은 제쳐두고, 이 세상 것을 마음에 담고 좋아하고 사랑하며 손에 쥐기 위해서 달려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삶에 끊임없이 먹구름이 덮이는 이유입니다.
선악을 판단하면서 이 세상 안에서 기쁘고 좋아하는 것들을 판단하면서 얻겠다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오르지 못할 나무에 오르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오히려 인류가 불가능처럼 여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가지는 것이야 말로 유일하게 허락된 오를 수 있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벌레와 구더기 같은 우리들과 만나시기 위하여 십자가 사건을 허락해주셨습니다.
내게 허락된 길은 돈을 더 버는 것이 아니고 재산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자녀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갖는 것만이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오를 수 있는 나무입니다. 빌닷은 마귀에게 속아 오를 수 있는 나무와 오를 수 없는 나무를 바꾸어 생각하며 욥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세상사는 동안에 허락하신 유일하게 오를 수 있는 나무인 십자가와 부

활과 승천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가지는 지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